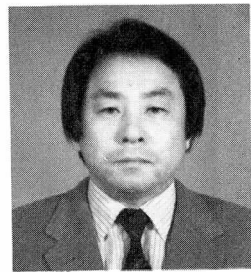


두루미



글·사진 李正雨
(鳥類研究家)

學名 Grus Japonensis
英名 Manchurian Crane



두루미는 옛부터 고서화나 문학적 소재를 통하여 구전으로 鶴이라 불려왔던 성서로운 새로 長壽와 吉한 이미지를 간직한 새이다. 또 이 새는 학술적으로 대단히 진귀하여 생존개체에 대하여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현재 지구상에 살아있는 개체수는 1,500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種자체를 천연기념물 제202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데 국내 서식조류 중 키가 140cm쯤으로 최대형이며, 워낙 번식개체수가 적어 감소일로에 있다.

우리나라에는 11월 하순부터 중국북부와 시베리아에서 번식한 두루미들이 남하하여 한반도에서 월동을 하고 2월 하순이 되면 번식지를 되돌아가는 겨울철새이다.

국내의 서식지로는 비무장지대인 철원북방의 평원과 판문점일원, 임진강변이 고정적인 도래지이고 기타 지역에서는 소수가 이동시기에 불규칙적으로 발견되기도 한다.

세계의 두루미 번식지는 시베리아 칸카호 일대와 일본 북해도 구시로 습지대, 중국 북부 자롱 자연보

호구의 습지에 한하고 있다.

작년에 한국조류탐사단으로 처음 답사한 중국 자롱 보호구는 11만 에이커라는 방대한 습지대의 갈대밭이었다. 두루미들은 갈대를 꺾어 습지위에 화산형의 둥지를 만들고 2개의 알을 낳아 암수 교대로 포란을 하는데 부화기간은 33일쯤 걸린다 하였다. 둥지는 인가가 있는 곳에서 수십km 떨어진 망망한 갈대숲에다 짓기 때문에 발견이 어렵고 또 이들 둥지간의 거리는 최소한 1km에서 수km 떨어진 곳에다 하나씩 짓는데, 이렇게 영역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생존상 필요한 지혜로 해석된다.

4월 하순부터 교미기에 들어서며 보통 2개를 산란하여 한 개가 부화되면 나머지 한 개의 알을 포기하는 두루미 특유의 생태를 아는 중국 자롱 자연보호구 연구원들은 이 알들을 모아다 부란기에 의해 인공부화와 불가사의한 인공육추를 시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었다. 이런 보기드문 사실을 해내는 그들은 그들만의 자존심으로 생각하고 또 긍지를 느끼며, 일반인에 공개하면서 자연에 대한 계몽과 관광자원으로 여유있게 활용하고 있었다.